

제5강

난징(南京)- 제국의 영광과 근대의 아픔이 함께 기억되는 고도(古都)

최은진(국민대 중국인문사회연구소)

<난징 개괄>

장강 삼각주 델타지역에 놓임(전체 면적 6,501km²).

6백만의 인구

도시 서쪽에 양쯔강이 흐름

온천이 많은 것은 철과 황의 매장량이 풍부한 것과도 관련(닝의 탕산 온천, 푸커우의 탕취안 온천)

난징은 충칭과 우한과 함께, "장강 유역 3대 화로(長江流域三大火爐)도시"로 불리는 다습한 아열대성 기후

1949년 건국된 중화인민공화국 이후 난징은 직할시가 되었음

국민당의 수도였기에 지방 소도시로 전락, 1953년 장쑤 성의 성도가 됨

1950년대에 중국 공산당은 빠른 산업화를 위한 국가 계획의 일환으로 국가 소유의 중공업을 세우기 위해 난징에 많은 투자를 하여 전기, 기계, 화학, 철강 공장 및 회사 본사들이 연이어 세워졌고 동아시아 중공업 생산 기지로 변화

1960년대 잘못된 투자로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

개혁개방 이후 다시 발전정책을 쓰게 되어 농업, 상업, 산업 발전의 정책을 취하고 1994년 부성급시로 승격됨

개혁개방 정책으로 외국회사의 유치 등으로 3차 산업도 성장하면서

2008년 난징의 총 GDP는 3775억 위안(553억 달러)로 장쑤 성에서 1위

중국전체에서 17위를 차지할 정도로 성장.

장강 삼각주의 주요한 지점으로 전통적인 역사문화유적지를 개발하는 이미지 확장에도 주력

<역사문화 이미지 창출 의도>

난징시는 문화"꽃피우기" 계획을 제시- 2013년 20개의 중점문화프로젝트를 시행할 예정
장닝(江寧) 직조박물관, 우수산(牛首山)유적지공원, 성남(老城南)기념관, 정화(鄭和)보물선유적지공원, 난징서화원(書畫院), 진링(金陵)미술관, 유적지공원 등 건물의 복원과 개조

2014년엔 고대 유적지 공원조성에 주력

육조(六朝)박물관, 대보은사(大報恩寺) 유적지공원, 양산비재(陽山碑材) 유적지공원, 명나라황궁 유적지공원, 까오춘(高淳) 설성(薛城)유적지공원 등 고대 유적지공원

중산로(中山路) 중화민국 근현대건물 복원, 명나라 성곽

친화이허(秦淮河) 100리 명승지 건설도 2014

이런 프로젝트를 통하여 난징시는 역사문화유적에 대한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며, 고대 도읍지의 특색을 살리고 문화적 이미지를 적극 발굴해 나가려 함

I. 오래된 역사- 많은 유적지와 역사 사건들

삼국시대 손권(孫權)이 오(吳)나라의 도움으로 정한 이래 10개 왕조의 수도였다.

현재 난징의 모습은 명대에서 이어짐

청말 홍수취안이 세운 태평천국의 수도

쑨원(孫文)이 잠시 총통으로 기능하던 중화민국 임시정부의 수도

장제스(蔣介石)의 남경국민정부의 수도(1927-1949)- 1937년 12월 남경대학살의 현장

중화민국(中華民國)시기(1911-1949)의 역사자료가 모여 있는 남경 제2역사당안관

1) 총통부 자리로 본 역사

장제스 국민정부의 총통부는 현재 장수성(江蘇省) 성정협(省政協)이 이용하고 있고 역사박물관으로도 활용

청나라 이래 지방관아의 기능하고 역사무대에 여러 차례 중심지였음

자초루(子超樓)- 옛 총통부 건물

---친일괴뢰정권의 수장 왕징웨이(汪精衛) 정부 요인들과

일본 장교들의 1938년 10월 출범 자축지

<총통부 문물자료 진열관>

1911년 신해혁명으로 잠시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쓰던 곳

1928년 장개석의 국민정부의 주석 집무실 총통부

일본의 침략 이후 왕징웨이 괴뢰정부의 총통부

1945년 9월 일본의 패망 이후 다시 장개석의 총통부

일본과의 전쟁이 본격화 된 1937년 경 장제스 정부가 티벳불교 수장 라마교 수장 9세 반선(班禪), 회교도 수장, 내몽고의 종교 수장 등을 접견하는 사진이 전시되어 있음-전쟁수행을 위해 친화를 도모한 흔적

1937년 12월 8일 난징이 함락되자 장제스 정부는 우한(호북 무한)으로 천도했다가 사천의 충칭으로 들어간 사이 왕징웨이는 충칭을 몰래 빠져나와 홍콩을 거쳐 난징으로 돌아와

1938년 3월 일본 괴뢰정권을 세움, 정부의 명칭은 '중화민국 유신(維新)정부'

항전이 끝나고 내전이 시작되려 한 장제스가 1946년 5월 충칭으로 가기 위해 비행기를 탔고 내전기간 협상을 위해 공산당의 대표 저우언라이(周恩來), 덩잉차오(鄧穎超) 부부가 양장을 하고 난징에 와서 최대한 협상을 위해 서양식차림을 했다고 알려져 있다.

내전으로 장제스가 없던 난징은 리중런(李宗仁)이 부총통으로 남아 있었고 공산당과 최종 협상을 한 뒤 미국으로 망명을 했던 광서성 출신 군벌, 1980년대 미국서 중국대륙에 오려 하다가 선상의 화재로 오지 못하고 사망했음

내전반대를 주창한 남경의 중앙대학 학생들이 시위를 벌여 물대포로 시위가 진압되기도 했음
1949년 4월 19일 국민당과 공산당간의 협상이 최종 결렬되고 공산군, 즉 인민해방군이 양자

강을 넘는 도강 작전이 20일부터 개시되어 23일 난징에 입성
공산당의 흥기가 나부끼게 됨

<총통판공실>

일반인에게는 개방되지 않음

장제스 판공실은 1936년 12월 일본군에 함락된 뒤 유신정부 행정원 원장이 사용
1948년 5월 헌법이 제정된 이후 총통으로 당선된 장제스가 타이완으로 갈 때까지 사용
베이징의 자금성과 비교해 보면 집무실의 규모가 크지 않다는 것

2. 장제스의 온천 별장

난징 외곽의 온천지대인 탕산(湯山)- 장제스와 그의 부인 쑹메이링(宋美齡)을 위한 온천 별장
1920년대 건축이 시작되었는데 부부의 침실, 장기를 두던 오락실, 응접실, 욕실로 구성
송씨 자매의 사진, 1937년 쑹메이링과 함께 항저우(杭州) 명승지 유람 사진
온천실의 구조- 수행원들의 공동 목욕탕, 시위대의 공동목욕탕, 쑹메이링 욕실(우유탕, 온천
탕 두 개), 장제스 총통의 욕실- 비상구를 통해 지하셋길로 바로 나가게 되어 있음

3. 남경대학살 희생자 기념관

평화의 종이 2003년 세워짐, 명문에 30만명의 희생자 명단이 새겨짐, 역사로서 거울을 삼아
새로운 미래를 열기 위하여 우리 중화민족의 뜨거운 사랑과 평화의 의지를 여기에 새긴다
220명 증언 생존자 발자국, 학살장소를 보존, 남경에 들어와 군인, 민간인, 부녀자, 아이들을
살해, 통곡의 벽- 유해발굴 현장, 일본인들의 참회와 애도의 탑, 기록전시관에는 잔혹한 살상
의 사진들이 보관- 집단의 광기는 공포의 심리를 바탕으로 하고 인간의 존엄성 도덕을 무시
하고 이를 합리화 한다. 일본의 전쟁광기는 어떠한 것으로도 합리화 하기 어려움

2007년 12월 13일, 난징대학살 70주년에 맞춰 18개월간의 보수와 정비 작업을 마치고 기
념관을 확장 개관했다. 이 기념관 때문에 일본과 중국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기념관
이 확장된 이후 일본은 내용물의 검토를 공식 요청

존 라베는 인도주의적 조치를 취했고 아이리스 장은 1996년 난징대학살을 세계에 알림
난징대학살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태도에 대한 성찰의 필요

남경에는 일본인들에게 불량조선인이 많은 지역으로 여겨져 조사대상이 되기도 했었음
금릉대학, 금릉신학, 금릉 중학에 한인 유학생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안창호의 흥사단 산하조
직이 활동하고 상해 임시정부에 참여했다.

1932년 봄 이후 한인독립운동가들이 장개석 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이며 김원봉, 김구
양대 계파 모두 지원을 받게 됨

두 계파는 이합집산을 거듭했고 상해 독립운동단체의 영향을 받아 움직였음

민족혁명당 내 의열단 계열이 남경한교회를 장악하게 됨. 300명 정도까지 증가했고 전쟁이 발발하자 상해의 피난민이 더해 졌다가 남경으로 피난했다고 함

4. 중산릉





<출처: 다음이미지>

신해혁명1911로 이루어진 난징 임시정부 총통이던 쑨원(손중산)의 무덤
규모가 매우 큼

1926년 3월부터 1929년 봄까지 무려 3년에 걸쳐 조성

무덤 입구에서 능까지 700미터, 높이 73미터 계단 392개, 넓이 2천여 묘

계단을 올라 도달하면 천하를 공유로 한다(天下爲公)이라는 쑨원의 친필 문장이 새겨진 문이 나옴

1925년 베이징에서 병사, 그의 유해는 베이징 근교에 안치 되었다가 1928년 6월 장제스의 국민혁명군이 베이징 점령에 성공한 뒤 유해를 옮겨 온 것- 쑨원의 후계자 임을 과시하려 쑨원의 건국대강- 1924년 4월 12일에 작성

장제스는 1927년 4.12쿠데타로 정권 장악- 공산당 숙청과 전쟁 북벌로 통일 완성

릉은 원래 제왕의 무덤을 지칭하는데 손중산을 아직도 제왕처럼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인 쑹칭링(宋慶齡)은 1981년 5월 사망하면서 이미 성역화된 이곳에 합장할 수 없어 부모님의 묘에 함께 안장

쑨원은 황제가 아닌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강하게 해왔지만 하나의 참배의 대상, 영웅만들기의 대상이 된 듯



5. 淸代の 강남공원(江南貢院)

청대 강소성, 안휘성의 지식인들이 모여서 과거시험의 1단계 향시(鄉試)를 치른 시험장

중국의 제 1의 시험장이라 불린 곳- 2만명의 응시생이 시험보던 곳

- 과거시험의 단계와 절차

동생童生이 시험보고 생원生員이 된 뒤 이곳에서 향시를 보고 거인이 되는 것, 거인은 3년마다 열리는 수도에서 치르는 會試에서 공사로 뽑힌 뒤 다시 황제 앞에서 전시를 치른다. 1등은 장원壯元, 2등은 방안榜眼, 3등은 탐화探花라 불림- 매우 길고 험난한 절차와 사다리

가장 많은 장원자를 낸 곳- 장수, 저장, 안휘, 쓰촨, 몽고의 순서

태평천국시 과거 급제한 여성도 있었음

강남공원은 3층 정도의 감시탑이 있어 시험관이 적발

6. 태평천국과 <홍슈취안의 천조궁전 역사문물 진열관>

청에 난을 일으킨 洪秀全과 태평천국이 1853년에서 1864년까지의 수도
반란 3년만에 난징을 天京으로 이름하고 수도로 삼음
청대 지방관서의 자리에 천조궁전(天朝宮殿)을 지음- 베이징의 자금성과 유사
청조 군대에 의해 난징 함락 후 태평천국이 멸망하며 거의 소실됨
천자가 많이 들어간 용어를 사용- 천당으로 가는 길, 천문대, 천왕의 보좌(의자)
천왕의 침실- 유별난 것은 없으나 처와 첩을 여럿 둠
원래- 태평군- 남녀부대로 군대를 따로 조성, 군을 어기고 합방하면 처형될 정도

<청 양강총독서(兩江 總督 署 사료전)>

양강총독서는 청대 최고 관청으로 양강지방(江蘇와 浙江) 은 물산이 풍부한 사회경제적으로
선진지역, 지방관 중 최고위급에 속함
아편전쟁의 결과인 최초의 불평등 조약 난징조약의 체결지- 린쩌쥬(林則徐) 와 영국의 포텐
샤가 체결
리홍장(李鴻章), 쑹귀판(曾國藩), 신해혁명과 관련한 자료 등이 양강총독과 관련해서 전시

7. 석두성에서 대성(臺城)

<석두성 石頭城>

춘추전국시대 와신상담의 고사로 잘 알려진 월나라 임금 구천이 오나라를 멸망시킨 후 신하
범려를 난징으로 보내 월성을 쌓게 했고 기원전 472년에 수축, 손권이 난징에 석두성을 쌓아
도읍을 옮기고 건업이라고 수도명을 지음, 석두성은 2중성, 오나라 수도를 지키는 방어용 성
벽, 양자강의 강줄기를 이용해 해자의 역할
제갈공명이 손권 만나러 왔다가 석두성을 보고 감탄, 난징을 후거용반(虎踞龍蟠-호랑이가 버
터 앉아 있고 용이 서려 있는 듯하다)라고 부름
이 토성자리에 주원장이 난공불락의 성을 쌓았음

<최치원崔致遠(857- ?)과 난징>

열두살 골품제의 한계를 실감한 아버지가 유학 10년안에 과거에 급제할 것을 요청하며 조
기유학을 보냄, 전라도 영암서 당나라로 가는 배를 탄 최치원은 長安에 도착, 837년 신라학
생 216명이 유학했다는 기록.

國子監에서 공부, 18세에 빈공과(외국인 상대의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을수현위 라는 지방
말단직에 임용, 종 9품

을수현은 바로 난징의 남쪽지역, 쌍녀분이 있는 곳,

을수현 영수사 터에 탑이 있고 탑 2층 최치원 상이 벽에 걸려 있음

당시 을수와 그 아래쪽 高淳이 합쳐서 宣城 으로 불렸고 최치원은 이 고순의 초현관招賢館
에서 머물렀으며 여기에 쌍녀분이 있다.

쌍녀분 발굴은 1996년 북경대 교수가 한국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최치원의 <쌍녀분기>는
이곳에 3년간 부임할 때의 이야기를 쓴 것으로 추정됨, 귀신이 된 두 자매와 만났고 다음날

무덤가를 거닐며 시를 지어 자신을 위로했다는 것), 이후 양주지역으로 임지를 옮기고 황소의 난을 진정시키는 공(토황소격문- 위협과 회유의 문체)을 세워 출세가도를 걷게 됨
최치원은 위민을 실천한 사람으로 재해석됨

<대성(臺城)>

명초에 쌓은 방어용 성벽, 즉 대성이 남아 있음

20만 농민이 21년간 쌓은 것으로 현재 20킬로 미터 정도가 남아 있는데 원래 성벽의 2/3정도라고 함- 엄청난 인원을 동원한 권력을 가늠케 함

현무호라는 거대한 인공호수가 양쯔강의 물을 끌어 들여 조성되어 있는데 천연의 방어시설이 됨- 양쯔강 중류와 하류 연안의 3개의 행성, 30개 부, 주, 현, 工部와 군부대에서 벽돌을 만들어 보냈음

성벽의 최고 높이 24미터, 평균 15.4미터, 성벽의 폭은 18센티미터에 이름

자금성보다 훨씬 큰 규모

전근대 군사방어지로 가장 최고 규모이며 건축예술이 집대성 된 곳으로 평가됨

: 벽돌 사이의 아교풀(쌀)이 6백년을 버티게 한 힘

삼국시대 손권의 오나라 때 建康으로 불림

육조시대(위진남북조)- 建業

오대십국시대- 남당(南唐)

명의 황궁- 가장 거대

8. 세계문화 유산이 된 명효릉과 관련 유적지- 오랜 시간들, 축적된 정보

<명효릉(明孝陵)>

명나라 태조인 홍무제 주원장의 무덤

자금산紫金山 기슭 ,1381년부터 1413년까지 30여 년에 걸쳐 건설

건국 초기부터 시작된 황릉 공사는 당시 황실에 경제적 파탄을 몰고 왔을 정도였으나, 많은 전란 속에 모두 소실되어 현재는 능의 일부만 남음

약 800m에 달하는 참배로에는 24마리의 석상은 교대로 황릉을 지키기 위함

- 사자, 낙타, 코끼리, 말 등의 동물이 종류별로 네 마리씩 조각된 석상으로 두 마리는 서 있고 나머지 두 마리는 앉아 있음

주원장은 무덤이 완성된 지 15년 만에 이곳에 묻혔고 순장된 관료 10명, 병사, 시종 46명 등 50여명이 황제와 함께 순장되었다고 함

주원장의 무덤 외 명의 황제 능은 모두 북경에 소재, 2대 건문제(建文帝)는 삼촌 주체가 죽임, 17대 도황제(嘉靖帝)는 반란군 이자성에게 목숨을 잃음, 6대 정통제(正統帝)는 몽고에게 끌려갔다 돌아와 다시 8대 황제가 됨 그러므로 명 17대 황제 중 무덤은 14개, 그중 하나가 난징 효릉인 것

청대 강희제가 순행 중 복원을 주장, 治隆唐宋이라 쓴 글을 내림.- 청의 통치 자신감

<영곡사靈谷寺>

중국 장쑤성 남경성 밖의 동북쪽 종산(鍾山) 자금산(紫金山)에 있음

남조의 양나라 이래의 옛 사찰이라고 하며, 북송시대에는 태평흥국사라고 하였으나 명나라 초기 태조(洪武帝)의 효릉을 건설하기 위하여 산 동쪽으로 옮기고 영곡사라는 이름을 하사했던 것
 지금은 옛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고 무량전無量殿이 .無染殿으로 개칭되어 남아 있을 정도이다.
 명 홍무년간(1368~98)의 건축이라고 전해지며 웅대한 건축

<명대 鄭和의 조선소 복원>- 2006년, 현재 정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

명나라 환관 정화(鄭和)가 1405년부터 일곱 차례 해상 원정을 하면서 이용했던 선박 중 한 척이 24일 중국 난징에서 600여 년 만에 복원, 공개됨

이번에 복원된 전장 63.25m의 이 배는 신대륙을 발견했던 크리스토퍼 콜럼버스가 1492년 탔던 산타마리아호(길이 약 23m)에 비해 훨씬 큰 규모

미국의 잡지 <Life>가 지난 천년동안 인류사에 영향을 크게 미친 인물 100선에서 중국 명나라 영락제 때 해군 제독이었던 鄭和(Zheung He)를 14번째 주요인물로 뽑음.

정화 제독은 운남성 진닝에서 무슬림의 후손으로 태어났고 1382년 운남성이 명에 점령당했을 때 포로로 끌려가서 거세된 다음 노예가 되어 조정에 환관이 됨, 영락제의 신임을 받아 정화 제독으로 임명되어 1405년부터 1433년까지 모두 7차례의 대규모 해외원정

- 그 원정대 보물선의 용적톤수가 2500톤에 이르는 규모였고 탑승인원 또한 유럽선박들의 열배에 해당했으니 당시로서는 세계최대였으며 원정의 목적은 정복이 아닌 조공(朝貢)제도의 확립

- 1421-23년의 6차 원정은 아프리카와 호주, 남 북아메리카 ,남극과 북극을 모두 돌아왔다는 기록, 1424년 영락제의 사후 조정은 마지못해 1433년 정화에게 마지막 원정을 허락

- 그 이후에 원양 항해용 선박의 건조를 금지 했고 정화의 선원들을 세리로 일하게 했으며 마침내 선박의 돛대를 두 개 이하로 제한하는 칙령까지 내림,

- 심지어 정화 원정대의 공식적인 기록까지 폐기할 정도로 보수적이고 쇄국적인 정책으로 일관

- 2002년 개빈 멘지스(Gavin Menzies) : <1421년: 중국, 세계를 발견하다. The Year China Discovered America.>

- 마젤란 , 다가마, 콜럼버스등 서구의 탐험가들이 중국의 천체도와 항해지도를 미리 보았고 거인의 어깨에 올라 세상을 더 넓게 멀리 보듯 도움을 받았을 것으로 봄

정화 제독은 1433년 마지막 여행에서 돌아오던 길에 인도의 Calicut 항구에서 사망해 전통적인 해양선박의 장례의식에 따라 바다에 수장됨

- 정화제독의 업적을 재조명하고 보물선을 원형복구하고 항해길을 재연 하는 등 정화 프로젝트가 한창이며 시진핑의 신실크로드 사업에 조응해 신해양실크로드의 시작지라고 주장하는 배경이 됨

<양산비재(陽山碑材)>- 미완성으로 남음

명황제 영락제가 부친 주원장의 묘비를 만들려다 만 곳

난징 외교의 양산을 깎다가 만 현장

영락제는 조카를 살해하고 황제 자리를 찬탈, 정통성 시비에 놓임

주원장의 무덤 孝陵 앞에 세우려고 했는데 돌의 중량만 31,167톤이고 높이는 78미터

영락제(성조)가 조선비의 소생이라는 설, 조선출신 환관들이 조선 태종과의 연계를 통해 불교 교류를 했었음

제주의 법화사 삼존불을 난징으로 옮겼던 것. 천계사로 옮겨짐.

<명청시대 난징>

청대 반드시 여행해야 할 5대 도시로 손꼽았던 곳- 북경, 남경, 양주, 소주, 항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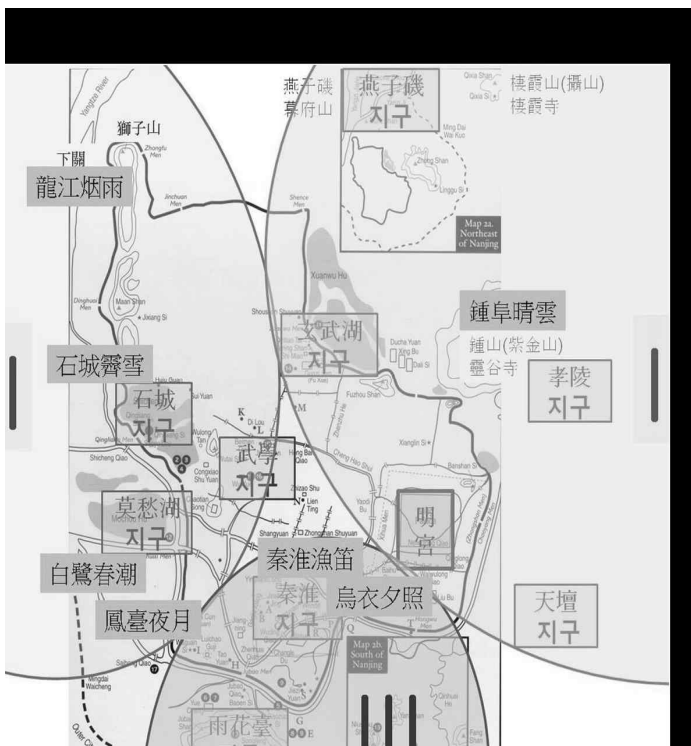
명청대 기녀문화와 연회활동의 본산이며 상업, 출판인쇄, 서화고공업과 같은 산업이 발전

마테오리치 같은 예수회 선교사들의 활동거점

17세기 중반(1600년대 후반) 명을 다시 세우려는 복명운동이 등장

육조시대의 고도로서 흥망성쇠의 역사적 비감을 담은 시와 그림으로 지식인들에게 재현됨

금릉 18경으로 재현 동시대 한국과 일본의 회화에 이러한 시각적 재현이 공유되었다는 점이 흥미로움. <17세기 남경지도>- 명청시대를 거쳐 회화시장의 네트워크와 이미지 공유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여기에 난징은 지식인들의 상징으로 그려짐



---- 현재 난징의 유적지 재건 사업과 난징의 공간 개발 등은 태평천국 신해혁명과 사회주의 혁명을 거쳤으나 난징의 혁명적 이미지 보다는 제왕적, 권력적 이미지가 더 확대 부각 되고 있는 점도 살펴 볼 수 있음